

레위기 19장 19절과 GMO¹⁾ 논쟁

장세훈*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전격적으로 체결된 뼈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신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MBC 문화방송의 “PD수첩”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집회로 확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철회되었다. 나아가 MBC 문화방송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입되는 GMO의 위험성도 함께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한국의 여러 식품 업체들도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GMO의 안전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GMO를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1)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약자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번역은 2007년 12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간행물, 『LMO관리제도의 이해』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후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GMO로 표기하기로 한다.

반대하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GMO를 찬성하는 토니 블레어 수상의 GMO 논쟁은 이 이슈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를 잘 시사해 준다. 흥미롭게도 어떤 이들은 GMO가 구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GMO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한다.²⁾ 예를 들면 그들은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레위기 19:19의 계명이 GMO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기 19:19의 계명은 GMO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신학적 근거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해석학적 시도는 지나친 문자적 해석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본 논문은 최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는 GMO 연구의 역사와 GMO 논쟁의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한 뒤, 레위기 19:19의 배경과 그 의도에 집중할 것이며, 나아가 과연 이 본문이 GMO의 비판을 위한 신학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2. GMO 연구의 역사와 개발 현황

2.1. GMO 연구의 기원과 진행 과정

GMO 연구의 선행 역사는 1971년에서 시작된다.³⁾ 1971년에 나탄스(D. Nathans)는 DNA 특정 부위의 염기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를 개발했으며, 1973년에 보이어(H. W. Boyer)와 코헨(S. Cohen)은

2) 특히 몇몇 유대인 출신의 학자들은 GMO를 kosher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GMO를 kosher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간에도 GMO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Michael Green, "Why GM food isn't kosher," *Jewish Chronicle*, 27/04/2007을 보라.

3) GMO 연구의 간략한 역사에 관해서는 "'프랑켄 식품' 혐오인가, 기아극복의 열쇠인가: GMO, 시작에서 현재까지 현황과 쟁점," 「교수신문」 2008.7.7.을 보라.

이중 간 DNA 단편을 결합시키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만들어 내었다. 이처럼 유전자를 마음대로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식물학 및 육종학 분야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고, GMO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1988년에 미국 칼진(Calgene)사 연구실은 GMO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칼진사의 연구원들은 ‘플레이버 세이버’(Flavr Savr)라는 유전자 변형 토마토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GMO 작물이다.⁴⁾

연구원들은 특정 유전자 발현을 선별적으로 억제시키는 엔티센스(anti-Sense)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의 노화를 늦추게 하여 식물이 수확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옮겨와도 물리지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1994년 미국식품의약청은 이 토마토를 GMO 작물로는 처음으로 정식 승인하였다. 나아가 1996년에 미국 몬산토(Monsanto)사는 자사의 제초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RRS’(Roundup Read Soybean)을 개발하여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제초제를 뿌려도 상관없는 콩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어서 노바티스(Novartis)사는 병충해에 내성을 지닌 옥수수(Bt maize)를 개발하였다.

2.2. GMO의 개발 현황

미국 몬산토사와 노바티스사의 GMO 작물 개발 이후 GMO는 줄곧 오늘날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GMO 농산물은 21개, 작물은 181개 종이다.⁵⁾ GMO 개발의 초기 단계에는 제초제 저항성, 병충해 저항성 등 재배상의 편익을 위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4) Ibid.

5) 이 자료는 2007년 12월에 발간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LMO 관리 제도의 이해』에서 가져온 것으로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에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영양, 맛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작물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GMO 연구 및 개발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 진흥청, 종묘 회사 및 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GMO 농산물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 중인 GMO 작물은 16작물 48종에 이른다. 하지만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개발되어 상업화된 GMO 농작물은 아직 없으며, 일부 작물은 포장시험 재배 단계에 있어 4-5년 이후에는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고 있는 작물은 고추, 벼, 양배추, 감자, 배추, 오이, 들깨, 수박, 토마토 등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GMO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상업화된 GMO 작물은 21개의 작물과 181개 종이 있으며, 옥수수가 44종, 면화가 22종, 유채가 25종, 대두가 12종 및 기타의 종이 개발되었다. 재배 면적으로는 1996년에 1.7백만 헥타르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1억 헥타르로 확대되어 처음의 60배로 증가하였다. 대두가 59백만 헥타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옥수수로 25백만, 그 뒤를 이어 면화가 13백만, 유채가 5백만 헥타르를 차지하며, 기타 작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55백만 헥타르에서 GMO를 생산하는데 면적은 전체의 54%에 해당하며,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로서 18백만 헥타르의 면적에서 GMO 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이 12백만 헥타르, 케나다가 6백 헥타르, 인도가 4백 헥타르, 중국이 3백 헥타르에서 GMO를 생산한다. 특성별 재배 면적으로는 제초제 내성 작물이 전체 GMO의 68%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해충 저항성 작물(19%)이며, 제초제와 해충을 결합한 작물 즉 복합 저항성(스택)품종이 13%에 해당한다.

2.3. GMO 국내 수입 현황

국내에 수입되는 GMO 작물은 주로 사료용인데 대체로 옥수수과 면화가 이에 속한다. 옥수수는 2006년에 5백 9십 5만 4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주로 미국에서 4백 6십 9만 4천 톤, 중국에서 1천 2백 5만 톤이 수입되었다. 이 옥수수는 사료 협회 등을 통해 수입되며 대부분 가공과정을 거쳐 배합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면화는 2006년 기준으로 7만 5천 톤이 수입되었는데 수입국은 미국(5만 2천 톤), 호주(1만 5천 톤), 베트남(7천 톤) 등이 있다. 이 면화는 단미사료협회 등을 통하여 수입되며 대부분 원료상태로 TMR 사료 제조 등에 사용되거나 낙농가에서 젖소에 직접 급여하기도 한다.

2.4. GMO의 안전성 평가

GMO 작물을 사용할 때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은 GMO 작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가 간 국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서는 바이오 안전성의정서(BSP)라고 불리며 50개국이 가입한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07년 10월 3일 한국은 143번째로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GMO 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상업화되어 교역되는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GMO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GMO의 수입을 위해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GMO 작물들은 인체 위해성 및 환경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수입이나 생산이 허가되며,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아래와 같다.

- 직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있는가
-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 별도의 영양 성분이나 독성을 지니는 성분이 있는가

- 삽입된 유전자가 안정성을 갖는가
- 유전자가 재조합되어 영양 변화는 없는가
- 유전자 삽입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없는가

따라서 국내의 GMO 수입은 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시판이 허용되고 있다.

3. GMO 논쟁: 반대론 대 옹호론

GMO의 개발과 사용은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GMO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GMO의 인체 위해성의 가능성 문제이다. 예를 들면, GMO 사용을 우려하는 그룹은 유전자 조작에서 사용되는 ‘선택 표지 유전자’(Selection marker gene)의 내성 문제를 지적한다. 이 선택 표지 유전자는 항생물질인 카나마이신(Kanamycin)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 내성 반응 유무로 유전자 변형의 성공을 식별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유전자 변형 식물 섭취로 카나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면 치료용 항생제의 치료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 유전자가 식물 게놈에 삽입되면 본래 유전자가 이에 반하는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문제는 GMO 작물 수확으로 토양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예를 들면 몬산토 사가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은 RRS만 살리고 거의 모든 생장물을 고사시켜버려 RRS를 거둬들인 토양 생태계가 크게 오염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환경론자들은 RRS 재배 후 주변 잡초들이 더 큰 내성을 가지게 되고, 제초제는 더 강력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GMO 반대론자들은 GMO

를 인정하게 될 때 GMO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농경제를 장악하여 또 다른 농경제의 패권주의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반대로 GMO 옹호론자들은 GMO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GMO 옹호론자들은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GMO 기술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 이석하 교수는 “현재의 자동차나 전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도 많은 인류가 그 위험성을 걱정했지만 더욱더 안전성 있게 개발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듯, 보다 개선된 미래 생명 공학 산물은 우리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 생명 공학 작물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위해성을 줄이는 것도 생명 공학 기술에 의해 가능하다”⁶⁾고 주장한다. 이처럼 GMO 기술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계의 기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역설한다.

물론 이들은 GMO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과학기술이 세계 기아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GMO 찬성론자들은 GMO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안전한 GMO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GMO 사용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력의 방안으로 GMO 기술국들은 생명 공학기술의 기준과 지침이 되는 법과 규율을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GMO 작물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그 동안 GMO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EU(유럽 연합)도 GMO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GMO 작물이 근래 지구상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6) 이석하, “식량 위기, 기술 위험... 결국 생명 공학이 열쇠,” 「교수신문」 2008. 7. 7.

4. 레위기 19:19과 GMO 기술 사용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GMO 기술 사용에 찬, 반 양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GMO 논쟁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도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그룹은 GMO 기술이 하나님의 창조권을 찬탈하는 반 성경적 시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그룹은 GMO 기술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아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⁷⁾ 예를 들면 GMO 옹호론자인 샘 그렉(Sam Gregg)은 GMO 개발이 창세기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독교 과학자 드위트(DeWitt)는 성경의 원리가 GMO 기술과 부합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GMO를 코셔(kosher)로 보아야 하는지 코셔로 볼 수 없는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랍비 라쉬 사이몬(Rabbi Rashi Simon)과 에드워드 사이몬(Professor Edward Simon)은 GMO를 코셔(kosher)로 간주하였다.⁸⁾ 또한 랍비 총회의 회원인 아브람 레이즈너(Avram Reisner)는 GMO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유대교는 매우 실용적이다. 유대교는 의학을 믿는다. 유대교는 인간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다양한 상황들을 충분히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과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해로운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⁹⁾라고 말했다. 반면에 마이클 그린은 GMO를 코셔로 분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다음과

7) 기독교인들의 이 두 입장에 대해서는 Trey Popp, “God and the New Foodstuff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generating a good deal of scientific and economic debate. How organized religion values this technology is anyone’s guess,” *Science & Spirit*, March (2006)이나 http://www.science-spirit.org/new_detail.php?news_id=573을 참조하라.

8) Joe N. Perry, “Genetically-Modified Crops,” *Science & Christian Belief*, 15:2 (2003), 141-163을 보라.

9) Trey Popp, “God and the New Foodstuff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generating a good deal of scientific and economic debate”을 보라.

같이 주장한다.¹⁰⁾

유대교 사상가들의 오래된 전통은 자연환경의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유대교의 목소리들은 1996년 GM 식물이 가게에 등장한 이래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교 권위 모임인 올소독스 유니온(Orthodox Union)은 유전공학이 코셔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가 미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 연구소(Teva Learning Centre)와 같은 다른 유대교 그룹들은 이런 주장에 논쟁을 벌이며 GM 이 작물과 가축을 섞지 말라는 성경의 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기독교와 유대교 신학자 및 과학자들은 GMO 기술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GMO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레위기 19:19의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는 표현 가운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계명은 GMO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로 인용되곤 한다.

물론 그린과 같은 유대인의 GMO 반대 입장이 유대 사회 대다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유대 사회는 현대의 기술 문명에 있어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GMO 사용을 긍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유대인 그룹은 GMO 사용이 레위기 19:19과 같은 구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현대 과학 기술의 GMO 개발의 부당성을 입증해 주는 성경적 근거로 사용되는 레위기 19:19의 해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레위기 19:19의 맥락과 그 본문의 의도를 찾으며, 나아가 그 신학적 함의도 함께 고찰하여 과연 레위기 19:19이 G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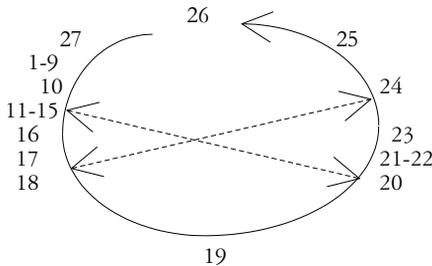
10) Michael Green, “Why GM food isn’t kosher”를 보라.

를 비판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4.1. 레위기 19장의 구조와 19절의 위치

레위기를 전공한 많은 구약신학자들은 레위기 전체 가운데 19장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연구의 권위자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은 레위기 전체에 위치하는 레위기 19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¹¹⁾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도 레위기 19장의 역할에 관심을 집중한다. 특히 그녀는 레위기 전체를 동심원 구조로 파악한 뒤 이 구조의 중심에는 레위기 19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¹²⁾ 그녀의 구조 분석은 아래와 같다.

<도표 1>



먼저 더글라스는 동심원 왼쪽에는 1-9장, 10장, 11-15장, 16장, 17장, 18장을 위치시키며, 동심원 오른쪽에는 20장, 21-22장, 23장, 24장, 25

11) Jacob Milgrom, "The Changing Concept of Holiness in the Pentateuchal Codes with Emphasis on Leviticus 19,"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John F. A. Sawyer, eds., JSOTSup 22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65-75.

12)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idem,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장을 위치시킨 뒤, 26장과 27장을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한다. 이 동심원 구조에서 왼쪽과 오른쪽 본문들의 중심점이 되는 본문은 19장이 된다. 다시 말해, 더글라스는 레위기 전체 구조가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더글라스의 주장은 기존의 레위기 구조 분석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레위기 구조 분석은 레위기 19장을 거룩의 법전에 해당하는 17-26장의 일부로 해석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레위기는 크게 1-16장과 17-26장, 결론에 해당하는 27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16장은 제사에 초점을 두며, 17-27장은 구체적인 희생 제물과 관련된 법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더글라스는 기존의 학자들이 간과해 왔던 바,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서 19장의 위치와 그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성경학자 알프레드 막스(Alfred Mark)와 같은 학자들이 레위기 19장의 중심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실로 레위기 19장은 독특하게 구별된다. 메리 더글라스가 지적하다시피,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동심원 구성의 중심이 된다. 분명 레위기의 저자는 레위기 19장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18장과 20장 사이에, 한편으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17장과 21-22장에 위치시킴으로써 레위기 19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원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때때로 교리서(catechism)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은 동심원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¹³⁾

둘째, 19장은 레위기의 다른 장들과는 달리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가령 레위기 19장 앞에 있는 레위기 18장

13) Alfred Ma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crificial Laws and the Other Laws in Leviticus 19,” *JHS* 8 (2008), 2-11.

에는 이 표현이 5회(4, 5, 6, 21, 30절) 등장하며 레위기 19장 뒤에 있는 레위기 20장에는 2회(7, 8절) 나타나지만 19장에는 1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더글라스는 14회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각각 7회씩 두 개의 짝을 이루면서 19장의 중심성을 더욱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고 주장한다. 셋째, 레위기 19장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십계명과 같은 뉘앙스를 준다. 그리하여 존 하틀리(John E. Hartley)는 레위기 19장을 “십계명의 해설”(an exposition of the Decalogue)로 간주하였으며,¹⁴⁾ 밀그롬도 레위기 19장을 “새 십계명”으로 명명한 바 있다.¹⁵⁾

밀그롬은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향해 지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밀그롬은 레위기 19장이야말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처방들을 제시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밀그롬은 레위기 19장을 “새 십계명”이라 칭한다. 밀그롬은 레위기 19장을 모두 18단락으로 나눈다. 그가 분류한 레위기 19장의 분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⁶⁾

- 단락 1 - 안식일 및 부모 공경(3절)
- 단락 2 - 우상 숭배 금지(4절)
- 단락 3 - 거룩과 부정(5-8절)
- 단락 4 - 농경에서의 거룩 요청(9-10절)
- 단락 5 - 윤리적 행동(11-13절)
- 단락 6 - 약자 억압(14절)
- 단락 7 - 불의와 무관심(15-16절)
- 단락 8 - 경계와 사랑(17-18절)
- 단락 9 - 쉬움(19절)

14)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311.

15) Jacob Milgrom, “The Changing Concept of Holiness in the Pentateuchal Codes with Emphasis on Leviticus 19,” 65-75.

16) *Ibid.*, 74-75.

- 단락 10 - 약혼한 여중(20-22절)
- 단락 11 - 농경에서의 거룩(23-25절)
- 단락 12 - 부정, 죽음 및 죽은 자 금지(26-28절)
- 단락 13 - 매춘 금지(29절)
- 단락 14-16 - 안식일과 성소, 죽은 자와 신접함, 장로를 공경함(30-32절)
- 단락 17-18 - 상권 윤리(33-37절)

밀그룹과는 달리, 노부요시 키우치(Nobuyoshi Kiuchi)는 레위기 19장을 아래와 같이 교차 대구 구조로 분석한다.¹⁷⁾

패널(Panel) 1(여호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초점)

- A. 3-4 안식일과 부모 공경
- B. 5-8 자신의 영혼의 구원
- C. 9-10 탐심에 대한 금지(농사)
- D. 11-18 ‘네 이웃’에 대한 피해 금지, 올바른 심판, 네 자신처럼 네 이웃처럼 사랑하라

패널(Panel) 2(수신자에 대한 초점)

- D'. 19-22 거룩한 것을 일반적인 것과 섞는 것을 금지: 올바른 판단의 한 예
- C'. 23-25 자신의 것보다 여호와에 대한 우선 순위(농사)
- B'. 26-29 자기 영혼과 몸에 대한 사랑
- A'. 30-32 안식일, 성소 및 어른에 대한 공경, 접신 금지

키우치는 먼저 레위기 19장이 크게 패널 2가 패널 1을 보충해 주는 구조를 취한다고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의 계명은 A'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B에서는 수신자의 이기

17) Nobuyoshi Kiuchi, *Leviticus*, AOTC (Nottingham: Apollos, 2007), 346-347.

적인 면과 거룩의 구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B'에서는 수진자의 영혼과 몸에 초점을 둔다. C는 탐욕의 문제를 다루지만 C'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강조하여 더욱 보완하고 있다. 끝으로 D는 참된 사랑과 올바른 판단 문제를 다루지만 D'는 D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과 적용의 문제를 다룬다. 이상으로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구조에 대한 밀그룹과 키우치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레위기 19장을 ‘새로운 십계명’으로 간주하며 레위기 19장과 십계명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둔 밀그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3-4절과 30-32절에서 동일하게 강조되는 안식일, 성소 및 어린 공경에 대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십계명의 첫 세 계명들을 연상시켜주는 바, 밀그룹의 주장대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십계명”으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레위기 19장을, 1-18절과 19-32절로 나누어 후자가 전자를 보완하고 있다는 키우치의 분석도 타당성을 지닌다. 만약 카우치의 분석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레위기 19:19은 레위기 19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후반부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4.2. 레위기 19:19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앞서 언급했듯이, GMO 사용 금지의 근거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레위기 19:19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학자들은 레위기 19:19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레위기 19:19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해석을 양산시키며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특히 레위기 19:19의 표현 중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계명의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입장들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기 19:19의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킬아인”(קילאין) 조항으로 잘

알려진 레위기 19:19의 해석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1.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해석

레위기 19:19의 해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정전기 문제와 관련시킨다. 즉, 실용주의적 해석은 한 옷에 다른 옷감들이 섞여 있으면 열대성 기후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편안한 복장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혹은 서로 다른 옷감들이 섞이면 빨래를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빨래가 마를 때에도 다르게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직조를 섞어 만든 옷감이 환영받지 못했다고 본다. 나아가 실용주의적 접근은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 실용주의적 해석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게 되면 땅이 더욱 황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한 밭에 같은 종자를 심는 것이며, 이런 농사법이야말로 농지를 보호하고 땅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다.¹⁸⁾

즉, 이 계명은 의식적인 규례라기보다는 토양의 질과 수명을 위한 “농경적 관심”(agronomic concern)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만약 레위기 19:19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필연성의 강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서 레위기 19장의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레위기 19:19의 계명은 “농경지의 보호”와

18) 가령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58-62을 보라. 또한 이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는 Calum M. Carmichael, “Forbidden Mixtures in Deuteronomy XXII 9-11 and Leviticus XIX 19,” *VT XLX* (1995), 434-435를 보라.

“편안한 옷감”을 위한 실용주의적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종교적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레위기 19:19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석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타당한 설명들을 고대하게 된다.

4.2.2.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해석

이 입장은 레위기 19:19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각자 서로 다른 종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창조된 것들을 서로 섞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하나님이 구별하신 방식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우트만(C. Houtman)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레위기 19:19과 신명기 22:9-11의 계명이 주어진 그 배경에 창조 질서의 원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출애굽기 20:18, 레위기 18:23, 20:15, 신명기 27:21에 등장하는 사람과 짐승 간의 수간 금지가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음에 주목한 뒤, 이와 같은 금지 계명들이 사람과 짐승을 다르게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해 준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레위기 19:19의 배경으로 창세기 6:1-4을 제시한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창세기 6:1-4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죄를 나타내 준다. 창세기 6장에서 이러한 영역 구별의 혼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리하여 하우트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창조 세계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의 보존을 강조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구별을 통해 존재하며 그 다양성 때문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반영해 준다.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의 구별 때문에,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물과 땅의 차이 때문에 존재하며, 사람과 짐승의 차이 때문에, 종들의 다양성 때문에, 사람을 세상의 다른 민족으로 흠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창 10:32). 구분과 다양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우주

를 무질서로 뒤바꾸는 것이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¹⁹⁾

그러나 하우트만의 해석은 의문을 남긴다. 첫째, 밀그롬의 주장대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교배”와는 전혀 다르며, 그 열매도 각각 다르게 맺히기 때문에 종을 섞는 창조 질서 파괴와는 무관하다.²⁰⁾ 둘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다른 종의 동물을 교배하거나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는 농사법이나 서로 다른 직조를 섞은 옷감을 입는 관행이 계속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굽이 라반의 집에서 행했던 교배 기술(창 30:25-43)이나 노새 같은 잡종 동물들이 계속 존재하였다(삼하 13:29; 18:9; 왕상 1:33; 18:5). 이사야 28:25은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는 농사법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사장은 양털과 아마포가 섞인 혼합 옷감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을 섞는 것이 창조 질서의 위배라면 야채와 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약 레위기 19:19의 금지 조항을 창조 질서와 연결시킨다면 기존의 입장보다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과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2.3. “섞음”을 거룩한 공간의 특징으로 보는 해석

이 해석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유대인 구약학자 밀그롬이다. 밀그롬은 “섞음”(mixtures)이 거룩한 공간 즉, 지성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¹⁾ 그에 따르면, 성막의 구조는 세마포와 양털이 함께 섞여 있는 장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출 26:1, 31), 대제사장의 예복, 흉패 및 허리띠도 동일하게 섞여 있는 형태를 취한다(28:6, 15; 39:29). 일반

19) C. Houtman, “Another Look at Forbidden Mixtures,” *VT* XXXIV, 2 (1984), 227-228.

20) Jacob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236.

21) *Ibid.*

제사장의 경우는 허리띠의 장식이 이런 패턴을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실과 섞여있는 장식을 취한다(민 15:39).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술에 있는 푸른 실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흉패를 감싸는 그 푸른 줄을 연상하게 된다. 나아가 밀그룹에 따르면, 성전의 케루빔은 지상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가 함께 섞여 있는 “혼성”을 시사해 주는 바, 이 케루빔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로 제사장들도 섞인 직조로 짜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케루빔처럼 되어 여호와의 섬기기 위해 성전 출입이 허락된다. 그리하여 밀그룹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리하여 “섞음”(mixtures)은 거룩한 공간의 거룩성과 그 공간에 출입하거나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들을 나타내 준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곳에 감히 출입할 수 없다. 거룩한 동산 출입을 지켰던 케룹이나 거룩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무장했던 레위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며, 허락 없이 이곳을 출입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민 1:51; 3:10, 38; 18:7).²²⁾

결론적으로 밀그룹은 레위기 19:19의 “섞음”이 성전 장식과 제사장 옷 장식의 “섞음”과 연결시키며, 궁극적으로 이 “섞음”이 거룩한 공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직 성전과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기에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밀그룹이 레위기 19:19의 “섞음”을 성전과 제사장 옷 장식과 연결시키는 독창적 해석을 제안하지만, 레위기 19:19은 옷의 섞음 뿐만 아니라 동물의 교배와 다른 종자를 뿌리는 농사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섞음”이 어떻게 성전과 제사장의 옷 장식과 연결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22) Ibid., 238.

4.2.4. 결혼의 관점에서 보는 해석

레위기 19:19의 “섞음”을 이방과의 결혼의 관점에서 해석들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예를 들면, 카마이클(Calum M. Carmichael)은 레위기 19:19의 개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카마이클은 레위기 19:19을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 대한 “잠언이나 현명한 평가들”로 간주한다.²³⁾ 그에 의하면,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레위기 19:19의 계명은 다른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를 반영해 주는데, 특히 요셉과 애굽 여인 아스낫과의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스낫에게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언약적으로 이루어진 이방 결혼으로 태어난 비언약적 자식들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²⁴⁾ 카마이클의 해석은 매우 독창적인 면이 있으나 대다수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주관적인 뉘앙스를 던져준다. 둘째,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섞음”의 문제를 이방과의 결혼과 연결시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그는 레위기 19:19의 “섞음” 금지가 이방과의 결혼 금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시 하나님은 빛과 어둠, 물과 물들 사이를 구별하셨다. 모든 섞음에 대한 금지, 더 구체적으로 섞어서 혼합시키는 것에 대한 금지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서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셨듯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한다(신 7:3-6).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삶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이 다른 존재들임을, 즉 거룩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언제나 상기하였다.²⁵⁾

23) Calum M. Carmichael, “Forbidden Mixtures in Deuteronomy XXII 9-11 and Leviticus XIX 19,” 436.

24) 이와 같은 지적으로는 Jacob Milgrom,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T* XLVI, 4 (1996), 545을 보라.

셋째, 어떤 이들은 레위기 19:19의 표현을, 이방 다산 제의 의식과 결부시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다산 숭배에 나타나는 남신과 여신의 교합의 형태가 이방인들의 삶의 현장에 반영되어 그 일환으로서 “섞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짐승을 교배하거나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다른 직조를 섞어 짜는 것은 일종의 다산의식의 세계관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나 “성적 결합”을 반영해 준다고 본다. 고든 피(Gordon D. Fee)와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uar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 율법 가운데 이와 유사한 다른 법들, 예컨대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레 19:19)는 법들을 말씀하신 이 유가 무엇인가? 이 율법들과 다른 금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풍요의 신 숭배(fertility cult)에 연류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주셨다. 가나안 사람들은 교감술(sympathetic magic)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신들과 자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들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삶으면 마술적으로 염소 떼의 지속적인 번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다. 동물을 혼배한다든지 종자를 섞어 뿌리고 재료를 섞어 직조하는 행위를 서로 ‘혼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마술적으로 나중에 그 ‘열매’를 경작하면 풍성히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19의 계명이 다산 제의의 관습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본문 자체를 통해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5) Gordon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n, 1979), 269-270.

26) Gordon D. Fee &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2), 266-267.

나아가 레위기 19:19을 다산 제의 관습 금지로 해석하려면 성경의 증거들뿐만 아니라 이런 관습을 소개하는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나 문헌들도 함께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이나 종자를 썩어 뿌리는 것이 다산 제의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문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산 제의 관습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성경 본문의 증거나 고대 근동 문헌의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해석은 단지 추론적 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5. 결론적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해석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19의 의미는 레위기 전체에 강조되는 “거룩”의 신학과 분리될 수 없다. 많은 레위기 전문가들이 인정하다시피, 레위기 에 강조되는 이스라엘의 거룩은 이방과의 “구별됨”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거룩”과 연결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 밀그룹의 설명은 눈여겨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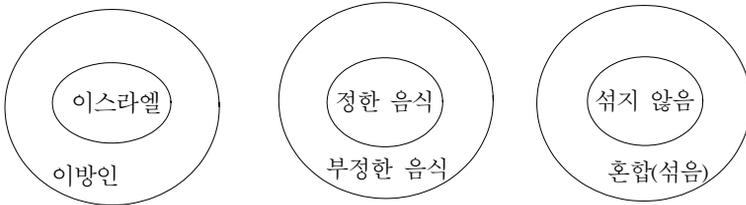
<도표 2>



앞의 도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 대상들을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9:1-11에서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나 족장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은 특별히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다(창 17:2; 출 19:6; cf. 레 25:42).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민 25:12-15; cf. 렘 33:17-33). 이처럼 위의 도표는 하나님의 세 언약 대상들을 잘 구분해 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세 언약 대상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는 동물들의 세 부류와 연결되는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은 정한 짐승과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언약의 대상들은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환경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거룩”의 도식은 레위기 19:19을 이해하는 큰 도움을 준다. 어떤 의미에서 레위기 19:19의 계명도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켜주는 거룩의 한 특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룩”과 “평범”, “정함”과 “부정함” 사이의 구별이 항상 존재하였다.

<도표 3>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룩”, “평범”, “부정”의 영역과 연결되어 구별되어졌다. 이와 같은 세 영역들은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신학적 표지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레위기 19:19의 “섞음” 금지 조항도 음식법과

같은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신학적 표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 (Christopher. J. Wrigh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아직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나머지 민족들 간의 이 근본적인 구별은 정한 동물과 음식물, 부정한 동물과 음식물에 대한 법규들의 복합적인 전체 틀 가운데 상징적으로 반영되어야 했다...하지만 이 법규들의 상징적 성격은 그 종잡을 수 없는 구약성경의 다른 법규들과 규제들도 이것과 동일한 범주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즉, 그러한 법규들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과 관련해서 상징적 의미를 지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법규들의 상징성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세계관과 상징적 우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측면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종자, 식물, 동물의 혼합을 금하고 있는 법규들의 배후에 깔려 있는 바가 아마도 이런 측면일 것이다(레 19:19).²⁷⁾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레위기 19:19의 본래의 의미했던 구별됨의 의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과 연결시킨 바울의 논점은 구약의 레위기의 신학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계명임을 일깨워준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경건과 도덕적 부패로 물든 세상과 달리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전함을 추구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롬 12:1-2).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시켜주는 표지로서 작용했던 레위기 19:19, 특히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법을 엄격하게 적용

27)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김재영 역 (서울: IVP, 2006), 412-413.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레위기 19:19의 이 계명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가령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존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엡 2장).

신약의 관점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 지었던 표지들은 십자가를 통해 폐지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것이야말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얻었던 깨달음이다(행 10:9-15). 결론적으로 레위기 19:19의 엄격한 문자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인식은 레위기 19:19을 GMO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는 시도가 부적절하며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준다.

<주요어>

레위기 19:19, GMO, 구약과 과학, GMO 논쟁, 구약의 적용

<Key words>

Leviticus 19:19, GMO, the Old Testament and Science, the GMO debate, Leviticus and GMO

참고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LMO 관리 제도의 이해』, 2007. 12.
- 이석하, “식량위기, 기술위험…결국 생명 공학이 열쇠,” 「교수신문」, 2008. 7. 7.
- “‘프랑켄 식품’ 혐오인가, 기아 극복의 열쇠인가: GMO, 시작에서 현재까지 현황과 쟁점,” 「교수신문」, 2008. 7. 7.
- Alfred Mark, Alf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crificial Laws and the Other Laws in Leviticus 19,” *JHS* 8 (2008), 2-11.
- Carmichael, Calum M., “Forbidden Mixtures in Deuteronomy XXII 9-11 and Leviticus XIX 19,” *VT* XLX (1995), 433-448.
- Douglas, Mary,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Douglas, Mary,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Fee, Gordon D. &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2.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Green, Michael, “Why GM food isn’t kosher,” *Jewish Chronicle*, 27/04/2007.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 Houtman, C., “Another Look at Forbidden Mixtures,” *VT* XXXIV, 2 (1984), 227-228.
- Kiuchi, Nobuyoshi, *Leviticus*, AOTC, Nottingham: Apollos, 2007.
- Milgrom, Jacob,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T* XLVI, 4 (1996), 544-547.
- Milgrom, Jacob, “The Changing Concept of Holiness in the Pentateuchal Codes with Emphasis on Leviticus 19,” John F. A. Sawyer, eds.,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JSOTSup 22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65-75.
- Milgrom, Jacob,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Perry, Joe N., “Genetically-Modified Crops,” *Science & Christian Belief*, 15:2

(2003), 141-163.

Popp, Trey, "God and the New Foodstuff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generating a good deal of scientific and economic debate. How organized religion values this technology is anyone's guess," *Science & Spirit*, March (2006).

Wenham, Gordon,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 1979.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김재영 역, 서울: IVP, 2006.

<초록>

레위기 19장 19절과 GMO 논쟁

장세훈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GMO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GMO를 반대하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GMO를 찬성하는 토니 블레어 수상의 GMO 논쟁은 이 이슈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흥미롭게도 어떤 이들은 GMO가 성경의 사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GMO 기술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레위기 19:19의 계명이 GMO 사용을 부정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기 19:19의 계명은 GMO의 부당성을 지지하는 신학적 근거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해석학적 시도는 지나친 문자적 적용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본 논문은 최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는 GMO 연구의 역사와 GMO 논쟁의 주요 이슈들을 살피며, 레위기 19:19의 다양한 해석들을 점검한 뒤, 과연 레위기 19:19의 본문이 GMO의 부당성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한다.

<Abstract>

Leviticus 19:19 and the Debate on GMO Issues

Prof. Se-Hoon Jang
(Kukje Theological Seminary & Univ.)

Over the past decade, genetic engineer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yet controversial means by which crop plants can be genetically altered. While proponents of GMO argue that they can use this technique to make plants grow faster, some scientists and environmentalist fear GM crops may have unforeseen consequences. Some Christian groups claim that GMO is essential while other sides reject the GMO technolog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ome religious groups such as Christians and Jews disagree with the GMO technology based on the biblical teachings including Lev. 19:19. In this sense,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legitimate to argue that the GMO technology is harmful based on Lev. 19:19.